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321

JCCT 2019-11-39

##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center Teachers

김희정\*, 임유경\*\*

Hee-Jung, Kim\* , You-Kyoung, Lim\*\*

**요약**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G시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SPSS 2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평균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영역들 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다양한 방안마련과 지원을 통해 교사의 삶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보육교사,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 관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teachers. The subjects were 264 teachers working in child-care center. The method of this study were the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computer program SPSS/PC 21.0.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showed higher than average degrees.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teachers. and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ll sub-domains.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hild-care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s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various programs.

**Key words** : child-care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resilience, relationship

## 1. 서 론

인생의 발달단계에서 영유아기의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

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 따라서 이시기에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영유아가 어린

\*부교수, 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제1저자)

\*\*조교수, 광신대학교 유아교육과(교신저자)

접수일: 2019년 10월 2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8일

Received: October 2, 2019 / Revised: October 22, 2019

Accepted: November 8, 2019

\*Corresponding Author: bbpig94@hanmail.net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shin Univ, Korea

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길어졌으며, 교사는 업무와 중과 초과근무, 낮은 급여, 부모로부터의 요구와 민원제기의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1]가 증폭되고 있다. 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드물게는 교사의 폭력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일례로 폭력문제는 교사에 대한 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CCTV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이는 다시 교사의 인권의 문제와 더욱 가중된 스트레스로 이어져, 종래에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최근 교사가 행복해야 영유아가 행복하다는 슬로우건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의 보육진흥원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교사의 행복감을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가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일 것이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자기실현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측면들의 합으로[1-2], 개인의 심리적인 정신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3]를 말한다.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인은 자아수용성(self acceptance), 자율성(autonomy), 환경에 대한 통제력(environmental mastery),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을 포함하며[4],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교사의 삶의 질 향상과 유아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교사가 교사현신[6-7], 교사효능감[8-10], 직무만족도[11], 교수자의 역할수행능력[12-13] 등이 높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률[14]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교사의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교육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사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극복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가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15]인 회복탄력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다[16].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환경적 측면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고[17], 생성되거나 유지 또는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18]. 즉,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인 것도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능력도 아닌 보편적인 적응기제이므로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 하겠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구성요인에 대해 김주환[16]은 자기조절능력(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대인관계능력(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 긍정성(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를 비롯하여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부모의 양육태도나 교육학적 관점에서 살필 때, 영유아를 담당하는 성인 더욱이 교사의 회복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자아상과 정체성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와 문제해결력, 학업적응력,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19-24]를 보였다.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의사소통능력, 정서지능, 행복감, 사회적 지지, 교수효능감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25-31]가 이루어졌으며, 중학교교사[32], 태권도선수[33], 의료종사자[34]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5][35]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교사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때 교사의 역할수행을 잘 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이 높을 때 어린이집의 산재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회복탄력성을, 회복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을 갖도록 하는데 서로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육교사가 어려운 문제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를 잘 극복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안녕

감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교육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은 훈련을 통해 높일 수 있다면, 회복탄력성을 높여줌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역할이 영유아를 지도하는 것 외에 부모와 관계, 과중한 업무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사의 삶의 질을 높일 때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어린이집 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3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총 28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총264부(94.3%)를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Subject

	구 분	N	%
연령	30세이하	72	27.3
	31-35세	62	23.5
	36-40세	94	35.6
	41세이상	36	13.6
경력	3년 미만	73	27.7
	3-5년 미만	145	54.9
	5년 이상	46	17.4
학력	보육교사교육원	25	9.5
	전문대졸	148	56.1
	4년대졸이상	91	34.4
기관 유형	법인어린이집	41	15.5
	민간어린이집	130	49.2

가정어린이집	93	35.2
전체	264	100.0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4]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박신영[36]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척도로, 6개 하위요인의 총54문항으로 구성된 6점 Likert 척도이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Reivich와 Shattel[37]의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문항을 김주환[16]이 수정보완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검사(KRQ-53)로, 3개의 하위요인의 총5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다.

### 3. 연구절차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 고찰을 통하여 설문지를 선정,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의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지는 2017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최종 264부를 연구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보육교사의 심리적안녕감, 회복탄력성의 수준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보육교사의 전체 심리적 안녕감은 6점을 기준으로 3.55점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에서는 자아수용능력(M=3.89)이 가장 높았고, 환경통제력(M=3.68), 긍정적 대인관계(M=3.55), 자율성(M=3.44),

삶의 목적(M=3.43), 개인적 성장(M=3.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전체 회복탄력성은 5점으로 기준에서 3.57점의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능력(M=3.64), 자기조절능력(M=3.59), 긍정성(M=3.4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기술통계 결과  
Table 2. Statistical resul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teachers

		Mini	Max	M(SD)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2.33	4.78	3.44(.50)
	환경통제력	2.44	5.33	3.68(.52)
	개인적 성장	1.89	5.22	3.34(.67)
	긍정적 대인관계	2.11	5.44	3.55(.72)
	삶의 목적	2.11	4.67	3.43(.53)
	자아수용	2.56	5.67	3.89(.59)
	전체	2.67	4.96	3.55(.51)
회복탄 력성	자기조절능력	2.72	4.44	3.59(.39)
	대인관계능력	2.67	4.78	3.64(.42)
	긍정성	2.33	4.56	3.46(.48)
	전체	2.65	4.54	3.57(.37)

## 2.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회복탄력성의 관계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전체 심리적 안녕감은 전체 회복탄력성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r=.79, p<.001$ ).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자율성과 자기조절능력( $r=.45, p<.001$ ), 대인관계능력( $r=.55, p<.001$ ), 긍정성( $r=.53,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환경통제력과 자기조절능력( $r=.52, p<.001$ ), 대인관계능력( $r=.64, p<.001$ ), 긍정성( $r=.66,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환경통제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성장과 자기조절능력( $r=.47, p<.001$ ), 대인관계능력( $r=.60, p<.001$ ), 긍정성( $r=.59,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긍정적 대인관계와 자기조절능력( $r=.45, p<.001$ ), 대인관계능력( $r=.70, p<.001$ ), 긍정성

( $r=.67,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 자신이 계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아의 다양한 면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아수용능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삶의 목적과 자기조절능력( $r=.47, p<.001$ ), 대인관계능력( $r=.57, p<.001$ ), 긍정성( $r=.66,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자아수용능력과 자기조절능력( $r=.48, p<.001$ ), 대인관계능력( $r=.64, p<.001$ ), 긍정성( $r=.76, p<.001$ )간에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사가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와 그에 대한 방향성이 높을수록,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in child-care teachers

	자기 조절 능력	대인 관계 능력	긍정성	전체
자율성	.45***	.55***	.53***	.59***
환경 통제력	.52***	.64***	.66***	.71***
개인적 성장	.47***	.60***	.59***	.65***
긍정적 대인관계	.45***	.70***	.67***	.71***
삶의 목적	.47***	.57***	.66***	.67***
자아 수용	.48***	.64***	.76***	.74***
전체	.55***	.72***	.75***	.79***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과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안녕감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자아수용능력,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결과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 현재 상황에 대해 교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어린이집 근무여건이나 환경 등 직업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심리적 안녕감이 보통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연구[3][11]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교사가 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력이 짧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경험한다는 고은아, 김광웅[38], 정효진[29]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녕감이 높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하위영역에서는 자아수용능력,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자아수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순복, 원지현[5], 개인적 성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이순복, 원지현[5]과 김경란 외[39] 연구와 일치한다. 자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곽찬미[40]의 연구,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김안나[11], 하지민 외[3], 길현주[35]의 연구,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하지민 외[3], 김경란 외[39], 길현주[35]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하다. 이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용하며 실행하지만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의 개인적 성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한 신현정, 박진성[14]의 연구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스트레스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성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감 높고[11], 직무스트레스와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41-42]고 볼 때,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회복탄력성이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이는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직무에 만족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아교사의 회복탄력성 점수가 평균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경미[28], 정효진[29], 이순자, 김진화[31]의 연구와 일치하며, 유치원교사와 초중등교사의 회복탄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권수연[43], 김주환[16], Roman-Oertwing[44]등이 본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 긍정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길현주[35]와 이수진[45], 최효정, 석은조[46]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기조절능력의 순으로 나타난 이소영[47]의 연구와 긍정성, 대인관계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황해익, 박정화, 홍성희[48]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자기조절력에 해당하는 충동통제력, 대인관계능력에 해당하는 공감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권수연[43]의 연구와 공감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이경미[2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교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은 유아교육현장이 유아만이 아니라 교직원, 관계기관, 부모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상급학교에 비해 연령이 어리고,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으로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교사가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해야 하는 특성에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가 가진 회복탄력성을 보다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을 위한 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영역 간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회복탄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길현주[35]의 연구와 유아교사의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순복, 원지현[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중학교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관계가 있다는 서지영[32]연구, 조직내 사회적 지지가 의료종사자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관계가 있다는 성명순[34]연구, 태권도 선수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관계가 있다

는 정시백[33]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처럼 두 변인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면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환[16]은 심리적 안녕감은 회복탄력성을 높이게 하는 사고방식이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자아수용과 긍정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자율성, 환경통제력, 개인적 성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전체와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하위요인도 높아지며, 특히 회복탄력성의 긍정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 간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길현주[3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는 이순복, 원지현[5]의 연구와 의료종사자나 태권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성명순[34], 정시백[33]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의 자아수용과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데 비해, 두 변인의 수준에서는 자아수용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긍정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자아수용은 높지만,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 등에 해당하는 긍정성이 낮아 보육교사가 업무나 스트레스 등으로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의 긍정성은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16], 교사의 자질과 능력향상은 교사 스스로 긍정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32], 긍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명순[34]의 연구에서는 조직 내 사회적 지지에서 상사의 지원보다 동료의 지원이 심리적 안녕감에 더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관련이 있는데, 조직 내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 간의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업무과중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다양한 방안 마련과 지원을 통해 교사의 삶의 질을 높임과 아울러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를 포함한 연구, 교사의 각 변인에 따른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Myoung-So Kim, Hye-won Kim and Kyeong-Ho Cha,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5, No.2, pp.19-39, 2011.
- [2] C. D. Ryff and C. L.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 [3] Ji-Min Ha, Hyun-Ah Seo, Hee-Jung Han and So-Ra Oh,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16, No.2, pp.487-513, 2015.
- [4]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7, No.6, pp.1069- 1081, 1989.
- [5] Soon-Bok Lee and Ji-Hyun Won,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on Ego-Resilience.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14, No.3, pp.263 - 281, 2013.
- [6] Kyung-Min Roh,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Teacher's Commitment of Married Femal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2010.

- [7] Mi-Ran Lee and Jung-Won Kim, Early Childhood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eachers' Commitment.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12, No2, pp.243-260, 2011.
- [8] Hee-Kyoung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1)
- [9] Su-Jin Park,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eacher Efficacy, Job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Female Teacher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10] Hyun-Joo Seo,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eacher Efficacy in Nursing Teacher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2006.
- [11] An-Na Ki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4, pp.163-182, 2014.
- [12] Eun-Kyung Kim and Ji-ryung Ahn, The Effect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Care Teachers on Their Role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 Institute of Care and Education. Vol.8, No.1, pp.25-45, 2014.
- [13] Jong-Heup Park and Nam-Chol Shin,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hood teachers. Humanities institut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Vol.9, pp.91-111, 2002.
- [14] Hyun-Jung Shin and Jin-Sung Park, The Study on Variables Affected Children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ed on Children Teachers'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4, No.2, pp.147-170, 2010.
- [15] S. S. Lutha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62, pp.600 - 616, 1991.
- [16] Ju-Hwan Kim, Resilience. Wisdom House, Gyeonggi-do, Korea, 2011.
- [17] M. Rutter,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No.3, pp.316-331, 1985.
- [18] S. B. Fine,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45, No.6, pp.493-503, 1991.
- [19] Ji-Eun Kwon,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3.
- [20] Ji-Hae Kim,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4, No.1, pp.41-62, 2012.
- [21] Ye-Seung Lee, Study on school stress,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With female students at high schoo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22] Sang-Hee Lim, The Effect of Children's Ego-Resilience on Stress and Stress-Coping Styl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23] Hur Jee Youn,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Resilience, Peer Relation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2004.
- [24] E.C.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5, pp.1067-1079, 1996.
- [25] Song Ji Ye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Burnout and Recovery Resilience in regard to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al Labor.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6.
- [26] Park Bi Du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Happiness,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2017.
- [27] Hae-Eun Lim,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4.
- [28] Kyoung-Mi Lee, 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Resilience of Child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2015.
- [29] Hyo-Jin Ju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Master's thesis, Kwangshin University, 2018.

- [30] Min-Seok Kim and Moon-Hyuk Jun,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perfectionism and work environment perception on job str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25, pp.53-73, 2016.
- [31] Soon-Ja Lee and Jin-Hwa Kim, The effects of Day Care Teacher's 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2, pp.49-73, 2017.
- [32] Ji-Young Seo, The 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Resilience of Middl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2012.
- [33] Si-Baek Jeong, The effect of taekwondo player's resili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2017.
- [34] Myung-Soon Seo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 Resilience of Health Professionals as a Mediato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4.
- [35] Hyeon-Ju Gil,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On Teachers' Psychological Well-being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s Setting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5, No.4, pp.93-107, 2016.
- [36] Seen Young Park,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llaborative Culture of Kindergarten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37] 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7 Essential Skills for Overcoming Life's Inevitable Obstacles*. New York, US, Broadway Books, 2002.
- [38] Eun-Ha Koh, Kwang-Woong Kim,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the Burnout and the Type of Coping of the Child Counselor,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4, No.1, pp.3-14, 2001.
- [39] Kyung-Ran Kim, Jae-Yeon Ho, Kyung Park and Ji-Young Jang, The effects o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and teacher-parents intera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 4. pp.277-300, 2016.
- [40] Chan-mi kwak, The Effects of Child Teacher's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7.
- [41] Il-Young Ko, Chul Kim, Kyoung-Youl Hwang and Young-Uk Kwun, The Influence of Perception to Disabilit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arenting Stress. Vol.10, No.1, pp.27-36.
- [42] Woo-Kyeong Lee and Hee-Jeong Bang,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adult women, mindfulness,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1 No.4, pp.127-146, 2008.
- [43] Su-Hyun Kwon, An Analysi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44] S. Roman-Oertwing, Teacher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USA, 2004.
- [45] Su-Jin Lee, Study on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4.
- [46] Hyo-Jung Choi and Eun-Jo Seok, An Analysis of Child Care Teacher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5, No.2, pp.93-115, 2013.
- [47] Soo-Young Lee, Study on Recovery Resil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4.
- [48] Hea-Ik Hwang, Jeong-Hwa Tak and Sung-Hee Hong, Impact of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7 No.3, pp.411-432, 2013.